

# 교재 녹음 속 성우가 전하는 몇 가지 메시지에 관하여

— 강세, 쉼, 어법, 담화 간 관련에 대한 고찰과 그 함축\*

朴贊旭\*\*

---

## ◁목 차 ▷

---

- I. 서론
  - II. 본론
    - 1. 문제: 실현 전의 어법 對 실현된 후의 어법
    - 2. 분석: 강세, 쉼, 어법, 담화 간의 관련 양상
  - III. 결론
- 

## I. 서론

본고는 교재의 대화 녹음 상의 성우가 실현하는 말하기 관습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텍스트<sup>1)</sup> 기반의 말하기 학습이 가진 한계를 음성에 기반한 원어민 관습 기반의 말하기 학습으로 보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는 아래의 예에서부터 시작된다.

- (1) 여러분제가 만약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말해야 여러분이 저를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흔히 '텍스트'라 할 때 문자와 음성을 모두 포함할 때도 있고 문자만 포함할 때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문자만 포함하는 협의의 텍스트로 국한한다.

필자가 말하기 수업을 담당할 때 '말 잘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사용하는 일례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시도에 웃는다. 왜 웃을까. 발음이 이상해서? 의미전달이 안 되어서? 한국어의 말하기 관습에 기댄 말하기가 아니어서 일 것이다. 언제 끊어야 하고 어디에 강세를 두어야 하는지 어떤 억양을 가져야 하는지 등 듣는 이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성 시 갖는 숨의 한계(상기 예에서는 글자 크기의 차등으로 그 한계를 표시)도 그 웃음에 한 몫 한다.

그렇다면, 위의 예에 문장 부호를 적절하게 찍어 준다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화자로 하여금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 (2) 여러분, 제가 만약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말해야 여러분이 저를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한국어 화자라면 위의 예를 보고 구어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상기 문장 부호에 준해 끊어 말하는 사람이 과연 실제 얼마나 될까. 필자의 몸에 배인 한국어 말하기 관습에 준한다면 아마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까(속도의 문제는 뒤로 하자).

- (3) 여러분, 제가 만약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말해야, 여러분이 저를=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라= 여길 수 있을까요?('='는 음 늘임; ':'는 쉼(짧고 긴 쉼 모두 포함))

본고에서 제기하려는 문제점은 바로 이 같은 차이에서 출발한다. 중국어라고 다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시중의 말하기 교재 중 어느 권이든 펼쳐보라. 예(2)는 현행 교재들의 대화문 제시 양식에, 그리고 예(3)은 교재에 딸린 녹음CD 상의 성우가 실현한 음성에 상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교육의 과정에서 인지 못했던 한 가지, 혹은 인지했으나 극복하기 힘들었던 한 가지—재고해야 할 점을 짚어낼 수 있다. 그것은 문장 부호에 준한 대화문을 마치 일상의 말하기 관습인 양 등가로 치부했다는 점, 그래서 '갖춘' 문장에 기반한 어법

을 교육하고 또 ‘갖춘’ 문장을 말하도록 또는 그 같은 선입견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교육해 왔다는 점이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무엇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필자는 그 해답 중 하나를, 본문에서 논의될, 성우의 발화에 대한 관찰로부터 얻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중국어 원어민 화자가 어떻게 끊어 읽는지를 분석하고 교육으로의 대입 방법을 모색하거나(박덕준 2000, 박용진 외 2006) 실험분석 방법으로써 끊어 읽기 면에서 중국어 원어민 화자의 끊어 읽기에 대해(심소희 1998, 박용진 2005) 또는 원어민과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간 끊어 읽기에 대해(심소희 1999, 김현철 외 2012) 고찰하고 있다. 상기 연구들은 본 연구에, 지식으로서의 어법과 음성의 실현 간 연관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충의 여지를 갖는다. 첫째, ‘갖춘’ 개별 문장에 대한 화자별 실현도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실현되는 맥락을 고려하는 데는 소홀했다. 둘째, 관찰 포인트를 주로 문장 성분이나 품사 등에 둬으로써 기능적 측면에 대한 고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따라서 흔히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연결어나 모문 동사의 변화 등이 폼과 갖는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으로 놓일 수 없었다. 셋째, 그 결과, 강세, 쉼, 어법 등이 개별 문장을 벗어나 담화적 요인과 맺는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예(2)와 (3) 간의 차이를, 띄어 읽기로부터 비롯된 차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Tao(2005)를 들 수 있다. Tao(2005)는 어법과 담화를 주제로 교재가 실제 대화와 갖는 괴리를 지적하고 실제 대화를 교재의 바탕자료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화 자료의 입수 및 전사 등에 걸쳐 아직까지 미국은 물론 한국의 연구 및 교육환경에서 수용하기에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인위성과 자연성의 양 극단의 중간에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절충적 해답은 없을까. 필자는 그 해답 중 하나로서, 어법과 담화 간 연구 방법론을 성우의 발화 관찰에 도입하고자 했다. 성우는 교재 텍스트를 읽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인위적이다. 교재의 내용 면에서는 성우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우는 결코 문장 부호에 준해 읽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상대적인 자연성이 확보된다. 자신의 말하기 관습에 준해 성우 각자가 맡은 역할에 분(扮)하여 발화하기 때

문이다. 어법과 담화 간 연구 방법론은 위와 같은 현상의 관찰에, 상호작용 속 어법이란 개념과 억양단위(intonation unit)를 기초로 한 전사 기술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본고는 상기 개념과 기술에 기대어 성우의 발화를 전사하고 그 결과를 교재상의 텍스트와 비교한 뒤, 출현하는 현상들에 대해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北京大學 한어구어》 제5권 중 제1과부터 제10과까지의 총 22개 대화 단락, 약 38분 분량의 발화물이다. 전사는 Du Bois 외(1993)의 표기법을 따랐으며,<sup>2)</sup> 작업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F4 plus라는 전사 프로그램과 전사용 풋페달(Infinity inusb-2 transcription foot pedal)을 이용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을 따른다. 본론의 ‘문제’ 부분에서는, 어법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교재 대화문 작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대안으로서 성우의 발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관찰을 위해 억양단위를 기초로 한 전사가 왜 필요한지를 논한다. 그런 다음 ‘분석’ 부분에서는, 전사된 성우의 발화 결과가 교재 텍스트와 어떤 면에서 차이를 갖는지 강세와 쉼을 중심으로 범주화하고 그것을 어법, 담화 등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 해석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본고의 분석과 논의가 갖는 함축을 제시한다.

## II. 본론

### 1. 문제: 실현 전의 어법 對 실현된 후의 어법

교육 현장에서는 흔히, 잡음이 섞여 있는가 아닌가, 성우의 발음이 깨끗한가 아닌가 등 CD의 음질에 초점을 맞춰왔다. 초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

2) Du Bois 외(1993)는 ‘..’, ‘...’ 등으로 쉼의 길이를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0.3)’과 같이 괄호를 이용하여 실제 길이를 표기하고자 하였다. Du Bois 외(1993)의 표기법에서 ‘.’은 단순히 쉼이 아닌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화자의 ‘지속’을 의미하는 억양 단위 표시 부호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사의 정밀도를 낮추는 대신 예문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 ‘...’ 등과 같은 쉼의 길이 구분은 가급적 두지 않았으며, 음의 늘임 표시 ‘=’와 억양 단위 표시 ‘.’, ‘.’, ‘?’ 등만을 주요 전사 기호로 채택하였다. 그 외 강세 표시 ‘ˈ’는 ‘\_’로 변용하여 해당 음절 또는 단어에 표기하였다.

일 수 있으나 학습량을 더해가면서 발음의 깨끗함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문제임을 깨닫기도 하고, 오히려 ‘진공 상태’의 언어라는 이유로 CD 자체를 도외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어 발화 관습의 간접적인 반영체로서 CD 녹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현행 교재의 대화문 제시는, 아래의 예문처럼, 기본적으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필요 논항들을 하나의 문장 부호 안에 넣는 경향을 갖는다.

(4) [3.1]<sup>3)</sup>

瑪麗：我最怕課間的時候在校園裏走路，有的人騎車帶着人，在人群裏鉆來鉆去，有時候衝着你就過來了。遇上這種人，你說該怎麼辦？

그러나 성우의 발화는 그것이 하나의 관념일 뿐, 서술어와 필요 논항들 간의 조화는 대화 속에서 청·화자 간 협업으로 이루어 내야 하는 공동 작업임을 암시한다. 아래는 예(4)의 전사 기록이다.

(4)'

瑪麗：我最怕=，課間的時候，在，校園裏走路，有的人，騎車，帶着人，在人群裏=，鉆來鉆去，有時候=，衝着你就過來了。遇上這種人，你說=，該怎麼辦？

전사 기록에 의하면 성우는, 첫째, 절(또는 준 절)<sup>4)</sup>을 빈어로 취하는 동사 ‘怕’를 채택할 때 ‘怕’를 중심으로 두 개의 억양 단위를 취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는 모문을 형성하는 동사가 그것의 빈어와 항상 동일한 억양 내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둘째, 예(4)는 문장 부호에 준해 ‘有的人騎車帶着人，[在人群裏鉆來鉆去]<sup>1)</sup>，…[衝着你(就)過來]<sup>2)</sup>’로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예(4)의 해석은 상기 해석에 더불어, ‘有的人騎車[帶着人在人群裏鉆來鉆去]<sup>1)</sup>，…[衝着你(就)過來]<sup>2)</sup>

3) 예문 첫 번째 줄의 각괄호 안에 명기된 숫자는 각각 순서대로 ‘과’와 ‘대화 단락’의 일련 번호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3.1]은 제3과 첫 번째 대화 단락에서 발췌한 것을 의미한다.

4) 이 용어는 Iwasaki 외(1993)에서 빌려 온 것이다. 하나의 억양 단위 안에 동사 서술어와 핵심 논항들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절(full clauses), 동사 서술어는 있으나 핵심 논항들이 일부 또는 전부 없을 때는 준 절(semi-clauses)이라고 칭하고 있다.

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의 선택은 청·화자 간의 대화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셋째, ‘我最怕…’와 강세가 실린 ‘衝(着你)’, 그리고 뒤를 잇는 ‘該怎麼辦?’은 의미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 중 강세가 실린 ‘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怕’의 직접적인 이유는 ‘有的人騎車帶着人, 在人群裏鑽來鑽去’가 아니라 ‘…衝着你就過來了’이며 뒤를 잇는 ‘該怎麼辦?’의 근거 역시 ‘衝着你過來’이기 때문이다. 강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衝’의 역할은 문장 부호 ‘。’를 넘지 못한다. ‘…衝着你就過來’는 ‘[我最怕課間的時候在校園裏走路]<sup>참명</sup>, [有的人騎車帶着人, 在人群裏鑽來鑽去, 有時候衝着你就過來了]<sup>부연</sup>’의 관계 속에서 동사로서만 기능할 뿐 그 경계를 넘기 힘들다는 것이다. 넷째, ‘你說’는 ‘說’ 자체가 모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째 논의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더불어, ‘你說該怎麼辦’ 뒤에 붙는 문장 부호 ‘?’가 ‘你說…?’에 호응하는 것이 아닌 ‘…(我)該怎麼辦?’에 호응하는 것임을 볼 때, ‘你說該怎麼辦?’은 ‘환기 어구 + 질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 역시 뒤의 ‘질문’과 호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你說該怎麼辦?’은 ‘你說該怎麼辦?’ 자체로서가 아닌 ‘你說=’와 ‘該怎麼辦?’로 나뉘 발화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상기 분석 결과는 예(4)와 (4)’가 단지 띄어 읽기만의 차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본질적으로 둘 간의 차이는, 교재 속에 구현된 텍스트가 지식으로서의 어법에 바탕한 것이라면 성우에 의한 발화는 원어민의 지식이 실제 구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현된 후’의 어법이 갖는 무질서를 ‘무질서’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무질서하게 보여도 ‘실현 전’의 어법보다 훨씬 더 다양한 원어민의 관습을 볼 수 있으며, 모문 동사의 양상으로부터 볼 수 있듯, ‘현재’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창을 성우가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문장 또는 절의 경계에 바탕한 실현 전의 어법은 기존의 어법적 경계를 넘어, 성우의 발화 실현에 의해,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최적의 의도 전달을 염두에 둔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인 어법으로 구현된다.

원어민 화자의 관습에 주목해야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대화든 읽기든 상관없이 화자라면 발화를 생산할 수 있는 발성 상의 한계를 가지며, 무엇보다도, 진행 중인 발화 내용에 주목할 수 있는 의식적 한계를 가진다.(Chafe 1987[김병원 외 2006]) 이 두 측면의 한계는 발화의 과정 속에서 역양 단위라는 일개 단위로 통합 구현되는데, 어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장이나 절, 명사구나 전치사구 등으

로 그리고 비어법적인 측면에서는 말 늘임, 머뭇거림, 수정을 위한 중단 등으로 실현된다. 여기서 ‘한계’에 주목하자. 이 한계가 바로 화자가 발화 시 끊임없이 흐르는 자신의 의식에 맞출 수 있는 초점의 범위라 할 수 있다.(Chafe 1987[김병원 외 2006]) 그것의 실현 양상을 통해 화자는 자신이 무엇을 전달하고 또 의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역으로, 청자는 한계에 따라 표현된 각 단위별 실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궁극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말하기 학습이 문장 어법의 텍스트 학습으로부터 벗어나 성우의 발화 관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결국 이에 대한 관찰로부터 우리는, 중국인 화자 간 상호 원활한 정보 교류를 도모하는 최적의 발화 관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며, 중국어 학습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원어민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해결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우의 발화 관습을 관찰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는 무엇이 요구될까? 사회 관습에 대한 관찰은 발화라는 일시적인 물리적 현상을 문자로 옮기는 작업이 요구된다. 바로 전사이다. 자연 담화 연구의 가장 보편적이면서 필수적인 단계로서의 전사는, “담화 연구로의 접근을 위해 발화 사건을 문자 기록화 하는 과정(Du Bois 외 1993:45)”으로 정의된다. 전사는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무엇을 단위로 할 것인가 등에 따라 Jefferson 체계, Ochs 체계, Du Bois 체계, HIAT 체계 등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Kreuz 외 2011) 본고는 그 중 억양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Du Bois 외(1993)의 체계를 따른다. 그 이유는, 억양 단위를 분석의 단위로 설정할 경우 운율과 어법, 어법과 담화, 자연언어의 관찰과 인위적인 실험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Chafe(1987[김병원 외 2006:88])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이는 억양 단위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한 많은 중국어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된다.(Tao 1991, 1996, 陶紅印 2003, Iwasaki 외 1993, 方梅 2000, Wang 1999, Biq 1995, 2001, 2002 등)

억양 단위란 “연관된 단일 억양 기록을 가진 일련의 발화 묶음(Du Bois 외 1993:47)”으로 정의되는 운율적 개념으로서, 물론 상당 부분이 대응 되긴 하나, 반드시 형태, 통사, 의미 등의 개념을 상위로 파악되는 개념은 아니다. Chafe(1987 [김병원 외 2006:71~89])는 억양 단위라면 전 후 간의 휴지, 빠르다 느려지는 어속, 높았다 낮아지는 억양의 변화 등을 일부 또는 전부 갖는다고 하면서 그것의

전형적인 형식은 평균 4개 전후의 단어로 구성된 절의 형태를 띤다고 하였다. 이를 중국어 연구에 대입한 Tao(1996:53~54)도, 중국어 역시, 상기 기준들에 의해 억양 단위를 분리할 수 있으며 평균 3개 전후의 단어로 하나의 억양 단위가 구성된다고 하였다. 다만 중국어는, 영어와 일본어에 비교하여, 절의 형태를 갖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의 형태를 띤다고 해도 갖춰진 절(full clause)보다는 준절(semi-clause)의 형태를 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Iwasaki 외 1993) 요컨대, 예(4)'를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듯, 본고에서 보이는 성우의 발화 전사 기록은 기존 어법 상의 경계 개념과 상이할 수 있으며 또 선행 연구 상의 띄어 읽기 경계와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실현 전의 어법 對 실현된 후의 어법은, 관념 속의 어법과 실제 속의 어법, 문장 기반의 어법과 담화 기반의 어법, 언어적 성분의 갖춤을 중심으로 한 어법과 의식의 흐름에 따른 결과로서의 어법 등으로 대별시킬 수 있으며 그것의 실현 양상은 다음 절에서 논의된다.

## 2. 분석: 강세, 쉼, 어법, 담화 간의 관련 양상

### 1) 강세와 어법 그리고 담화

#### ① 강세와 是

是에 대한 논의는 어법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기초 중국어 교재 중에서도 是는 '~는...이다'라는 논항 간 등가를 의미하는 연계 동사로서 가장 처음 등장하며 그 뒤로는 '강조'의 是로서 각 단계별 중국어 교재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텍스트에서 출현하는 여러 是의 예이다.

- (5.1) [7.2] 安娜：房東是個和善的老太太。
- (5.2) [1.2] 瑪麗：我們是剛認識的。
- (5.3) [1.1] 田中：……我是前年九月來這所大學的，
- (5.4) [3.1] 瑪麗：是瘦了點。
- (5.5) [1.2] 王峰：(對瑪麗)我這個人是挺愛交朋友的，

예(5.1)은 是가 연계 동사로서 기능하는 예이다. ‘~는...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5.2), (5.3)은 강조 기능을 갖는 ‘是...的’ 구조 속에서의 是이다. (5.4)는 사실을 확인 또는 인정하는 기능의 是이다. 그렇다면 (5.5)는 무엇의 是일까. ‘是...的’ 구조 속의 是일까, 사실 확인의 是일까. 텍스트가 가진 한계다. 예(5)의 다섯 개 대화문이 각각 성우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아래 예를 보자.

(5.1) [7.2]

瑪麗：房東，對你怎麼樣？

安娜：房東，是個和善的老太太。

예(5.1)은 갖 이사한 安娜의 집에 瑪麗가 방문하는 맥락의 대화이다. (5.1)에서 安娜는 瑪麗의 질문에 是로써 집주인을 묘사하고 있는데, 두 논항 간의 등가를 보여준다는 특성 상 연계 동사는 여느 동사들과 달리 강세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5.1)에서도 성우는 瑪麗의 질문(“怎麼樣”)에 제공되는 정보(“和善”)에 맞춰 강세를 주고 있다.

(5.2) [1.2]

大衛：你怎麼知道？

瑪麗：我們是剛認識的。

예(5.2)는 大衛가 瑪麗와 田中을 상호 소개시켜주는 맥락의 대화이다. 중국에 갓 도착한 瑪麗에게 자신의 일본인 친구인 田中을 소개시켜주려 하였지만 瑪麗가 먼저 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언급하자 大衛는 놀라며 어떻게 알았는지를 묻는다. 이에 瑪麗는 ‘是...的’를 이용하여 방금 전에 알게 된 사이(瑪麗와 田中 간 소개가 [1.1]의 내용이다)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현된 성우의 강세에 주목하자. “是...的’는 강조 기능을 가진 특수구문으로서 주요 강조 대상은 이미 발생한 사건 중 ‘是...的’ 내, 특히 是 바로 뒤의 부사적 성분이다.” 어법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교재 내 ‘보충 설명’도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말하기 수업에서조차도, 어법이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我們是剛認識的”와 같은 텍스트를 보는데 그칠 뿐 “我們是剛認識

的”처럼 어법이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성우는 대화문이라는 맥락 속에서 ‘是…的’가 가진 기능과 용법을 강제로써 간단하고 명료하게 ‘들려주고’ 있다. 나아가 성우는 ‘是…的’ 내 내용이 길 경우 是의 기능과 그 대상 간의 관계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지도 보여준다. 아래 예를 보자.

(5.3) [1.1] 田中: ……我是前年九月, 來這所大學的。

예(5.2)와 (5.3)은 ‘是…的’에 대한 설명 속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5.2)와 (5.3)은 ‘是…的’의 설명에 좋은 예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강조가 실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강조 표지와 강조 대상 간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까지도 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준다. 다음으로 사실 확인/인정의 是를 보자.

(5.4) [3.1]

大衛: 瑪麗, 幾天沒見, 你好像瘦了。

瑪麗: 是瘦了點兒。

예(5.4)는 며칠 만에 만난 두 친구가 인사를 나누는 맥락이다. 瑪麗의 변화된 모습을 大衛가 먼저 언급하자 실제로도 그러한 변화가 있었음을 瑪麗는 是로써 인정하고 있다. (5.4)의 예를 통해, 사실 확인/인정의 기능을 갖는 是의 사용에 요구되는 몇 가지 조건을 추릴 수 있는데, 첫째, 선행 화자로부터 비롯되는 ‘확인’ 또는 ‘인정’ 대상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是는 장르상 주로 대화라는 맥락 속에서 사용된다. 둘째, 선행 화자의 발화 내용을 ‘확인’, ‘인정’하는 것이므로 是 뒤의 내용은 선행 화자와 동어 반복(瘦—瘦)을 구성한다. 셋째, 연계 동사나 특수 구문 상의 是와 다르게, 是가 갖는 ‘확실히 그러함’이란 의미가 강제로 구현된다. 이 같은 차이를 통해 확인/인정의 是는 형태적으로 유사한 아래 예의 是와 구분된다.

(6) [1.1]

田中: 哪位?

瑪麗: 請問, 大衛同學, 是在這兒住嗎?

田中：是啊。

예(6)의 是도 ‘是+서술어’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상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면에서 ‘강조’의 是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확인/인정의 是는 선행 화자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선행 화자의 발화 내용 중 무엇을 확인/인정할 것인가는 예(5.4)’처럼 선행 화자의 마지막 발화일 수도 있지만 아래 예처럼 발화 속 어느 내용일 수도 있다.

(5.5)’ [1.2]

大衛：你還是和以前一樣，跟誰都愛交朋友。和這位中國朋友差不多。是吧，王瑋？

王瑋：我這個人，是挺愛交朋友的。以後有甚麼要幫忙的，找我好了。

예(5.5)’는 친구들 간에 상호 소개하는 맥락으로서 예(5.2)’를 잇는 대화이다. 大衛 말에서의 “你”는 瑪麗를 가리키지만 뒤에 이어지는 “和這位...”부터 직접적인 청자의 방향이 瑪麗에서 王瑋으로 전환된다. 이에 王瑋이 말을 잇는데, 성우는 상기 조건에 맞게 “我這個人是挺愛交朋友的”를 “我這個人，是挺愛交朋友的”로 실현하며 王瑋의 자기인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앞서 예(5.5)를 제시하며 지적하였던 텍스트의 한계를 상기해 보자. 구조적으로 ‘是...的’의 모습을 띠며 ‘강조’의 是인지 ‘확인/인정’의 是인지가 모호하다면 是가 사용되는 대화의 구조적 맥락과 성우가 구현하는 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② 강세와 정보

Chafe(1987[김병원 외 2006])는 정보에 대한 논의에서 기존의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라는 이분법에 ‘활성값’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가능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그러면서, 흔히 강세는 새로운 정보 또는 사용가능한 정보에 주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주어진 정보에도 경우에 따라 주어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특히, 주어진 정보는 청자와 화자 모두에게 활성화되어 있어 강세가 주어지는 일이 흔치 않으나, 그와 같은 구분과는 무관하게, 정보 간의 ‘대조’를 의미할 때는 맥락에 따라 강세가 주어진다고 하였다. 아래 예는 그것을 보여준다.

(7) [4.1]

大衛：我建議你先找個研究生，互相輔導吧。我的中國朋友很多，我幫你找。

瑪麗：那你快去吧！現在就去！

예(7)은 瑪麗의 중국어 학습에 관한 대화이다. 중국에 유학온 지 얼마 되지 않은 瑪麗가 자신의 중국어 학습에 대해 걱정하며 大衛에게 개인 교사를 구해줄 수 없는지 물어본다. 大衛는 어떤 교사를 찾는지 묻지만, '어떤' 교사를 찾기보다 교사를 '찾는' 데 주의한 탓에 瑪麗가 뚜렷한 의견을 내지 못하자 대학원생으로 해보라 권유하며 도와주겠다 한다. 그러자 조급한 마음의 瑪麗는 "那你快去吧！現在就去！"라며 大衛의 행동을 중용한다. 그렇다면 맥락 상 "現在就去"에서 강세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7)'

大衛：我建議你=，先找個研究生，互相輔導吧。我的中國朋友很多，我幫你找。

瑪麗：那你=快去吧。現在就去。

흔히 중국어는 '주어진 정보 + 새로운 정보'의 정보 구조를 가지며 강세는 새로운 정보에 둔다고 한다. (7)'의 "現在"는 주어진 정보인가 새로운 정보인가. 大衛와 瑪麗가 대화를 나누는 '지금은 언급하지 않아도 공유하고 있는 주어진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우는 "現在"에 강세를 주었다. 왜일까. 앞서 언급한 '대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선행 화자로서 大衛는 "我幫你找"라는 언약의 행위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언약의 결과는 보통 가깝게는 헤어진 이후, 멀게는 일정량의 시간을 들여 두루 "找" 해본 다음에야 얻을 수 있다. 즉 瑪麗의 마음과는 달리 '지금'이 아니다. '지금'과 '이후'의 대조적 관계, 그것을 성우는 강세로 보여주고 있다.

(8) [1.2]

大衛：瑪麗！是你啊！好久不見了！甚麼時候來的？怎沒也不告訴我一聲兒？

瑪麗：我想讓你大吃一驚。怎麼樣？沒想到我們會在這兒見面吧？

예(8)은 大衛와 瑪麗가 오랜만에 해후하는 맥락이다. 大衛가 매우 반가워하는 동시에 어떻게 한마디 소식도 없이 왔느냐며 묻자 瑪麗가 놀래주려 했다고 응수하

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성우는 “沒想到我們會在這兒見面吧”의 어디에 강세를 부여할까.

(8)'

大衛：瑪麗。是你呀。好久不見了。甚麼時候來的？怎麼也不告訴我一聲兒？

瑪麗：我想讓你=大吃一驚。怎麼樣？沒想到，我們會在這兒見面吧。

‘주어진 정보 + 새로운 정보’의 정보 구조 속에서 “沒想到我們會在這兒見面吧”는 그 자체가 새로운 정보에 속한다. 발화 자체가 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폭은 더 넓어진다. “沒, 想, 到, 我, 們, 會, 在, 這, 兒, 見, 面, 吧” 중 어디에 제일 강한 강세를 놓아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도 역시, 성우는 맥락에 대한 고려와 ‘대조’로부터 찾을 것을 권한다. 예(8)' 앞에 제시되는 [1.1]에서 瑪麗는 공공롭게도 大衛가 잠깐 외출한 시간에 기숙사를 방문한다. 기다리는 동안 大衛의 룸메이트와 통성명을 하며 상호 기본적인 소개를 하는데, [1.2]는 소개를 마칠 즈음 大衛가 들어오며 시작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주어진 瑪麗의 “沒想到我們會在這兒見面吧”에서 성우는 “這兒”에 강세를 주었다.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을까.

大衛와 瑪麗는 이미 ‘이 곳’(“這兒”)에서 ‘대면하고’ 있다(“見面”). 두 화자가 모두 처해있는 공간이고 또 그들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즉 “這兒”과 “見面”은 모두 주어진 정보이다. 하지만 이 둘 간에는 차이가 있다. “見面”은 “離開”와 대립된다. “見面”은 대화 진행의 배경이 되는 행위로서, 만일 “離開”라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대립의 선택 가능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見面”할 수 있는 장소는 대화를 나누는 “這兒” 외에도 얼마든지 다양하다. “這兒”은 大衛에게 우연의 장소이지만 瑪麗에게는 계획된 장소이므로 大衛가 놀랄 수 있는 장소는 瑪麗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성우는 전후 발화 맥락을 바탕으로,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지?)’라는 대조의 의미를 강세로써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강세와 보어

동작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는 중국어 동사의 특성 상 동작의 결과를 보여주는 보어의 출현은 대화 속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발화 시 ‘동사+보어’의 구조에서 어느 쪽에 강세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말하기 연습에서 항상 따라다닌다. 이에 대

한 문제를 살펴보자.

(9) [4.2]

王峰：瑪麗，聽大衛說，你想找個研究生互相輔導？

瑪麗：是啊，找到了嗎？我都等不及了。

大衛：找到是找到了，就是不知道你滿意不滿意？

瑪麗：你還沒告訴我他是誰呢。

大衛：是個男的，歷史系的。

王峰：他也喜歡打籃球，跟我一樣。

瑪麗：真的？我甚麼時候可以見到他？

예(9)는 예(7)의 뒤를 잇는 대화로서 瑪麗가 개인 교사를 구하는 맥락이다. 大衛로부터 瑪麗가 개인 교사를 급구한다는 것을 접한 王峰이 瑪麗를 만나자 그에 대한 사실을 재확인한다. ‘嗎’, ‘A不A’ 등의 의문 표지를 쓰지 않고 진술(“你想找個研究生互相輔導”)의 어기를 올리는 것으로 질문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작 부탁을 청했던 大衛가 아닌 중국인 친구 王峰이 사실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找到了嗎？我都等不及了。”로부터 볼 수 있듯, 瑪麗의 기대감은 배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瑪麗의 “找到(了嗎)”에서 강세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에 이어, 찾기는 찾았다고 했으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한 채 관련 정보만을 大衛가 계속 흘리고 있다. 이에 瑪麗도 결국 그가 누구인지(“他是誰”)에 대한 대답의 요청을 포기한 채 이번엔 “我甚麼時候可以見到他”로써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 다시 한 번, “見到(他)”에서 강세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예(9)는 상기 두 문제에 대해, 동일한 ‘동사+보어’ 구조만을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 맥락에 기대어 실제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대답을 보류하고 있다.

(9)'

王峰：瑪麗，聽大衛說，你想找個研究生，互相輔導？

瑪麗：是啊。找到了嗎？我都等不及了。

大衛：找到是找到了，就是不知道，你滿意不滿意。

瑪麗：你還沒告訴我，他是誰呢。  
 大衛：是個男的，歷史系的。  
 王瑋：他也喜歡打籃球，跟我一樣。  
 瑪麗：真的？我甚麼時候=，可以見到他？

‘동사+보어’ 속 강세에 대한 고민은 첫째, 보어 역시 동사에서 출발하였고 지금도 동사의 의미를 배태하고 있으며 둘째, 그럼에도 ‘보조/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동사보다는 그 지위가 부차적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구조가 동일한 “找到”와 “見到”의 경우는 더욱 헷갈릴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의 단서는, 성우의 실현 결과를 바탕으로 대화의 맥락에 기댄 담화 속에서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예(9)에서 성우는 瑪麗의 “找到(了嗎)”와 “見到(他)” 중 각각 “到”와 “見”에 강세를 주고 있다. 앞서 논의했던 대화의 맥락을 다시 살펴보자. 王瑋의 사실 확인 질문에 조급해진 瑪麗에게 “找”는 타인이 ‘해주길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해 주어야 하는’ 당연한 행위이다. 기대감에 부푼 瑪麗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找”라는 행위에 ‘결과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우의 이해 결과가 자연스럽게 ‘결과가 있는가’, 즉 “到”에 강세를 배당한 결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질문(“他是誰”)에 대한 대답 요청을 포기한 瑪麗가, 大衛가 주는 정보에 의해 커진 기대감으로 선택한 차선택은 직접적인 행위(介紹)의 요구이다. “我甚麼時候可以見到他”는 전후 맥락 상 “快讓我見到他”, 즉 소개에 대한 요구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추구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동참할(見)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 결과는 자연스레 ‘결과’ 보다 ‘행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며, “見”에 준 성우의 강세가 그것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 ④ 강세와 행위 언어

행위 언어란 행위를 지시하거나 특정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를 가리킨다.(Carter and McCarthy 1997(Tao 2005:12 재인용)) ‘action language’ 또는 ‘language-in-action’이라고 칭하는데, 주로 직시적(deictic) 성격을 갖는 ‘it’, ‘that’, ‘there’, ‘here’ 등의 형태로서 대화를 하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특정 실체나 장소 등을 이해하는데/이해시키는데 사용된다.(McCarthy 외 1994:67) 행위 언어는 지시 대상이 가진 명칭을 지시어가 대신하기 때문에 지시 대상에 대한 청·화자

간 공동의 목계가 있어야 하며 더욱 정확한 지시를 위해 동작이나 기타 언어적 표지를 필요로 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10) [8.1]

安 娜：我也看花眼了。哎，你看這件怎麼樣？

瑪 麗：哇！太暴露了吧？

安 娜：這是新潮！你還那麼保守啊！那，你在看看這件。

瑪 麗：這件還說得過去，不知道大小和不合適。

售貨員：你可以試試，試衣間在那邊。

예(10)은 安娜와 瑪麗가 상점에 들러 옷을 구매하는 맥락이다. 瑪麗가 여러 옷들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자 동행한 安娜가 “這件”을 추천하지만 瑪麗는 노출이 심하다며 거절한다. 이에 安娜가 보수적이라 나무라면서 다시 “這件”을 추천하고, 瑪麗는 “這件”을 수용하지만 다시 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추천한 ‘這件’을 거절하자 다시 ‘這件’을 추천하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지 않는다. 교재 텍스트만으로는 풀 수 없는 한계다. 분명, 선행한 “這件”과 후행한 “這件”을 구분시켜주는 장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는 첫째, “這件”이란 발화에 상응하는 관련 지시체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옷이든 대신할 수 있는 기타 물건이든 상관없다. 둘째, 발화에 수반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앞의 “這件”과 뒤의 “這件”이 다른 것임을 ‘가리키는’ 행위가 발화에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상기 두 가지와 병행하여, 그것이 ‘확실히 그것임’을 의미하는 강세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 중 관련 지시체의 준비와 행위의 수반은 발화 시 갖춰야 할 외부 대상이므로 잠시 논외로 하자. 아래는 성우가 실현한 강세의 표현이다.

(10)'

安 娜：我也看花眼了。ei, 你看，這一件怎麼樣？

瑪 麗：哇=, 太暴露了吧。

安 娜：這是新潮。你還那麼保守啊。那=, 你再看看這一件。

瑪 麗：這一件=..還說得過去。不知道=, 大小=是不是合適。

售貨員：你可以試試。試衣間在那邊。

예(10)에서도, 전사의 기록만으로는 행위 언어가 갖는 특징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다. 첫째, “這一件”의 “這”에 강세가 부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눈여겨 볼 것은, “這”의 실현이 ‘제안-수용/거절’이라는 행위 구조 속에서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這一件怎麼樣<sup>제안</sup>—太暴露了吧<sup>거절</sup>”, “你再看看這一件<sup>제안</sup>—這一件=..還說得過去<sup>수용</sup>”이 그것을 보여주며, 반면에, ‘평가’의 행위(“這是新潮”)에서는 강세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을 반증한다. 제안하는 지시체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세의 부여는 자연스럽다. 둘째, 지시체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자연스럽지만, “這一件”은 청·화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지시체이며 게다가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실한 주어진 정보에 속한다. 주어진 정보는 청·화자 간 인지 활성값이 낮다는 이유로 강세를 띠지 않는 경향을 띠는데, (Chafe 1987[김병원 외 2006:95]) 그럼에도 강세가 부가된 이유는 무엇일까. 2.1.2절에서 논의했던 ‘대조’를 상기한다면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여러 종류의 옷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것임’을 의미해야 한다는 성우의 해석 결과로 볼 수 있다. 상기 해석은, 뒤 잇는 “試衣間在那邊”에도 ‘명확한 방향의 지시’,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저 곳’이라는 대화 의도를 성우가 적절하게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적용가능하다.

## 2) 쉽과 어법 그리고 담화

쉽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언어학적 면에서 갖는 쉽의 의미는 때론 ‘나열’을 의미하는 표지로서 또 때론 절을 구분하는 표지로서, 그리고 주제를 끌어내는 표지로서도 가능하다. 어법화나 재분석이 필요한 어구로부터 볼 수 있듯, 하나의 형태적 단위가 공식적 변화를 겪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자로서도 역시 가능하다. 인지적인 면에서 쉽은, 억양으로 구분되는 화자 의식의 초점 단위를 표시하고 자기 수정이나 머뭇거림 등으로 의식이 순탄치 않음을 표시한다. 또 상호작용적인 면에서 쉽은, 청·화자 간 어떻게 정보와 태도를 조율해야 할지 생각할 여유를 주고 자신의 발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굳이 세분화시켜 생각하였지만, 이들 모두가 실제 발화 속에서는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관찰을 통해 쉽게 발견된다. 그렇다면 성우는 어떻게 교재 텍스트에 ‘쉽’을 붙여 넣고 있을까.

① **쉽과 모문 동사(matrix verb)**

Huang(2003)은 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모문 동사 10개(覺得, 知道, 看, 想, 曉得, 希望, 問, 以爲, 發現, 記得)를 빈도순으로 들어 기능 및 내포문과의 관계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모문 동사가 절을 직접 빈어로 내포하지 않는 경향을 띠면서, 그만큼, 담화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아래는 이 중 자연 담화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던 ‘覺得’와 ‘知道’가 교재 속에서 어떠한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1.1) [3.1] (我)眞覺得不方便。

(11.2) [7.1] 我還是覺得住在校內方便。

위의 예(11)에서 “覺得”는 같은 의미에 같은 기능을 할까. 이에 대한 질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覺得”는 ‘느끼다’라는 의미로서 동사성 빈어와 절 빈어를 모두 취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을까. ‘아니다’라고 했다면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을까. 출현 맥락과 성우의 쉽에 대한 관찰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11.1)’ [3.1]

瑪麗：還有，很多中國人，有午休的習慣。有時候=，我想找朋友=，或者去=，辦公室，都找不着人，眞覺得不方便。

예(11.1)’는 瑪麗가 大衛와 중국 유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이다. (11.1)’에 앞서 瑪麗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활동과 친구가 적어 힘든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였다. 大衛도 자신의 과거 경험을 꺼내며 동정하자 瑪麗가 다시 자신의 두 번째 부적응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11.1)’에서 瑪麗는 중국인의 낮잠 습관에 대해 친구를 찾을 때나 사무실에 일보러 갈 때도 사람을 찾을 수 없어 “不方便”하다는 자신의 느낌을 “覺得”로써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覺得”는, 느낌의 표현에 가장 잘 호응하는 형용사를 빈어로 취함으로써, ‘覺得’ 자체가 가진 사전적 의미와 기능에 충실하다. 또 그만큼 두 성분(“覺得”와 “不方便”) 간의 관계도 쉽이 들어가면 어색할 정도로 긴밀하다.

(11.2)' [7.1]

安娜: ……玩游戏, 發電子郵件, 看電影光盤, 都用不着去網吧了。

瑪麗: 我真羨慕你。

安娜: 周圍=, 有超市, 飯館兒, 交通也方便。怎麼樣, 你也搬出來住吧。

瑪麗: 我還是覺得=, 住在校內方便。上課, 吃飯, 去圖書館都近。

예(11.2)'는 安娜와 瑪麗가 이사를 중심 주제로 나누는 대화이다. 기속사로부터 막 이사를 나가 좋은 점을 언급하는 安娜를 瑪麗는 부러워함에도 “너도 이사 나오라(你也搬出來住)”는 安娜의 권유에는 “覺得”로써 거절하고 있다. (11.2)'에서의 “覺得”가 (11.1)'의 “覺得”와 다른 점은 첫째, 절을 빈어로 취하고 있다. 즉 모문으로서 기능한다. 하지만 철저한 종속의 개념을 가진 (11.1)'의 “覺得”만큼 빈어와의 관계가 긴밀하지는 못하다. 둘째, 성분 간의 느슨함을 표현한 성우의 실현 결과로서, 뒤에 쉼을 갖는다. 물론 쉼이 “覺得”의 기능을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쉼은 “覺得”가 가진 기능상의 변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사실, 安娜의 권유(“怎麼樣, 你也搬出來住吧”)에 대한 거절은 곧바로 “住在校內方便”라고 해도 인접쌍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覺得”는 왜 쓰였을까. 여기서도 여전히 ‘~라고 느끼다’라는 원의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다. 수의적인 성격으로의 지위 변화가 생긴 만큼, “覺得”에도 문장의 층차가 아닌 담화 상의 기능이 생겼다고 의심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2)'의 “覺得”가 “권유—거절”이라는 행위 구조 속에서 기능한다는 점을 판단할 때, ‘내 생각에는’ 또는 ‘내 판단에는’이라는, 일종의 ‘거절’의사 표시의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쉼은, 어법의 공식적 기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知道”의 예를 보자. 자연 담화 속 “知道”에 대한 연구로는 陶紅印(2003)을 들 수 있는데 교재 텍스트에 대한 성우의 실현과 비교하여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지 우선 통계 비교 결과를 살펴보자.

유형	陶紅印(2003)						일치 여부	성우의 실현 결과					
	분류	횟수	%	세부	횟수	%		분류	횟수	%	세부	횟수	%
빈어 유무	유	55/117	47	명사	10/55	18	유무 불일치 / 세부 일치	유	13/18	72	명사	1/13	8
				동사	29/55	53					동사	9/13	69
				절	16/55	29					절	3/13	23
	무	58/117	50				무	5/18	28				
쉽 유무	유	92/117	79				일치	유	12/18	67			
	무	25/117	21					무	6/18	33			
주어 호응	1인칭	73/117	62				일치	1인칭	13/18	72			
	2인칭	24/117	21					2인칭	3/18	17			
	3인칭	13/117	13					3인칭	2/18	11			
부정사 호응	부정	68/117	58				일치	부정	10/18	56			
	기타	49/117	42					기타	8/18	44			
명시1	부정	23/68 (58%)	64	기타	13/49 (42%)	36	일치	부정	5/10 (56%)	62.5	기타	3/8 (44%)	37.5
잠재1	부정	32/68	89	기타	4/49	11	일치	부정	5/10	100	기타	0/10	0

표1. “知道”에 대한 陶紅印(2003)의 연구결과와 교재 속 성우의 실현도

표1.를 보면, 우선 빈어의 유무에 있어 陶紅印(2003)에서는 빈어를 갖지 않는 경우가 갖는 경우보다 좀 더 많았지만 텍스트에 제시된 대화문에서는 빈어를 갖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는 교재가 갖는 ‘갖춤’의 규범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빈어를 갖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면, ‘동사성 성분/절’명사성 성분 순으로 그 추세는 일치한다. 그 다음 쉽의 유무를 보면, 陶紅印(2003)은 쉽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약 4배 정도 많았지만 성우의 실현 결과에서는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쉽 있음/쉽 없음’의 추세는 일치한다. 셋째, 대명사와의 호응도를 보면 둘 다 상당히 유사한 백분율로 ‘1인칭>2인칭>3인칭’의 추세를 보였다. 넷째, “知道”가 부정의 형식으로 쓰였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서도 두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부정>기타’의 추세를 보여주었다.(단, “我怎麼知道...”처럼 반문의 부정도 1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인칭대명사와 부정의 결합도 면에서,<sup>5)</sup> “我+不知道”(명시)와 “∅(=我)+不知道”(잠재)가 陶紅印(2003)에서는 전체 1인칭 대명사 73개 중 55개를, 교재 대화문에서는 13개 중 10개를 차지하고 있어 각각 전체

5) 교재에서는 “不知道”가 1인칭 대명사 “我”와만 호응하였기 때문에 비교 역시 1인칭만을 비교하였다.

“知道” 117개, 18개 중 약 47%, 56%가 “我(또는 0)+不知道” 형식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교재 텍스트는 ‘빈어의 유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자연 담화 연구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씬의 유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텍스트 관찰로도 파악이 가능한 것이므로, 씬의 유무에 반영된 성우의 실현이 텍스트의 실제성 구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知道”가 갖는 기능은 어떠한가. “覺得”와 같은 양상을 교재에서도 떨까. 자연 담화에 대한 陶紅印(2003)의 논의로부터 크게 두 가지 면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첫째, “知道”가 가진 일반적 기능이다.

- (12.1) [10.1] 王父: 別客氣。不過=, 關於京劇的知識, 我還真知道一些。  
 (12.2) [5.2] 瑪麗: 借車, 不難。可就算是有了車, 我還是不知怎麼走啊。

예(12)의 두 예처럼 “知道”의 보편적 기능은 ‘어떤 사실이나 지식, 정보를 알다 또는 모르다’를 표현하는 것이다.(陶紅印 2003:294) 사전적 의미 그대로 ‘알다’, ‘알지 못하다’는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예는 어떤가.

- (10)’ [8.1]  
 安 娜: 這是新潮。你還那麼保守啊。那=, 你再看看這一件。  
 瑪 麗: 這一件=..還說得過去。不知道=, 大小=是不是合適。  
 售貨員: 你可以試試。試衣間在那邊。

예(10)’은, 앞서 2.1.4절에서 언급했듯, 옷을 구매하는 맥락이다. 예(10)’에서 瑪麗는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옷을 골랐지만 그것의 사이즈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不知道”를 사용하고 있다.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우는, 망설임을 표시하는 ‘=(음 늘임)’을 연이어 곁들이며 瑪麗가 가진 고민의 흔적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발화된 “不知道”는 ‘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능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이즈가 몸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大小=是不是合適”)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의미하는데 쓰였을까. 아니다. 예(10)’의 “不知道”는 옷 사이즈에 대한 자기 의문(自生疑惑), 즉 화자 내부의 주관적 의심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陶紅印 2003:294) 발화 현재, 瑪麗는 옷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늠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몸에 꼭 맞을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자기 의문을 “知道”로써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서, 이 같은 “不知道”의 후행 말화로는 흔히 ‘알지 못함’에 대한 해소가 아닌 ‘의문’에 대한 해소 또는 해결책이 제시된다.(陶紅印 2003:295~296) 예(10)’의 售貨員은 해소의 일환으로서 행위를 촉구(“你可以試試”)하고 있다.

## (13) [2.1]

瑪麗：這本=，中國歷史講座，有點兒難。中國概況，我能看懂，可是=，不知道=，能不能聽懂。

王老師：那=，你先去試聽一次，然後，再來選課。

예(13)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예(13)은 교재를 구매하는 맥락이다. 중국에 갓 도착한 瑪麗가 수업 준비를 하며 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책의 난이도를 평한 뒤 자신의 수학 능력에 대한 ‘의문’을 언급하며 “不知道”를 사용하고 있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견해를 “不知道”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예(10)’과 마찬가지로, 후행 화자는 “你先去試聽一次，然後，再來選課”를 제안하고 있다. 다시 교재 텍스트로 돌아가 보자.

(12.1)’王父：別客氣。不過，關於京劇的知識，我還真知道一些。

(12.2)瑪麗：借車不難，可就算是有了車，我還是不知怎麼走啊。

(13)’ 瑪麗：這本《中國歷史講座》有點兒難，《中國概況》我能看懂，可是不知道能不能聽懂。

(10) 瑪麗：這件還說得過去，不知道大小和不合適。

성우의 충실한 실현이 없다면, 자연 담화와 비교하여, “知道”의 상당수가 “我(또는 你)+不知道, ” 형태로 쓰이며, 또 그것이 겪는 기능상의 변화를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까. 결국 상기 예는, “주관적 성분의 증가는 화용화 정도의 증가를 보여주는 주요 표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의 증가는 통사 및 기존의 규범을 벗어나는 현상을 유도한다(Thompson and Mulac 1991 외[陶紅印 2003:294

재인용))”는 것을, 쉽과 제반 현상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② 쉽과 연결어

교재 속에서 제시하는 연결어는 흔히 ‘전형적인’ 논리 관계에 의해 배열, 제시된다. 예컨대, 인과 관계는 ‘因爲~, 所以...’처럼, 말 그대로 ‘선 원인 후 결과’의 순서를 전형으로 삼는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因爲~, 所以...’는 현재, ‘전형’과는 다르게, 계획되지 않은 대화 속에서든 인쇄매체에서든 ‘전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정도로 그 순서가 뒤바뀌어 사용되고 있다.(Biq 1995, Wang 1999)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因爲’와 ‘所以’의 출현이 적어 교재로의 반영 정도를 비교하기 힘들지만 ‘可是’, ‘不過’, ‘因爲’, ‘所以’, ‘然後’, ‘以後’, ‘其實’ 등 역접, 인과, 시간, 부연 등을 주로 표현하는 연결어들을 성우가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그 쉽의 양상을 살펴보고 몇몇 기능들을 일례로 논하고자 한다. 다만, 미리 언급할 것은, 이들의 출현 위치를 억양 단위 내의 서두에 출현하는 것에 국한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갖는 일종의 ‘독립성’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또 ‘~ 以後’처럼 (준)절을 이끄는 예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먼저 연결어에 대한 성우의 쉽 실현 양상을 보자.

주요기능	역접		인과		시간		부연
연결어	可是	不過	因爲	所以	然後	以後	其實
쉽 실현수/ 총출현수	9(0)/9 6)	11(4)/ 11	1(0)/1	1(0)/1	2(0)/2	9(0)/1 2	5(2)/5
쉽 실현 백분율	100	100	100	100	100	75	100

표2. 연결어에 대한 성우의 쉽 실현 양상

표2에서 ‘可是’, ‘不過’, ‘因爲’, ‘所以’, ‘然後’, ‘其實’는 텍스트 출현 대비 쉽 실현 백분율이 100%로서 성우가 상기 모든 연결어 뒤에 쉽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以後’는 12번의 텍스트 출현 대비 9번의 쉽을 실현함으로써 약 75%의 쉽 실현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3/4이란 비중을 감안한다면 전체 분석 대상 내에 출현하는 상기 연결어 거의 모두가 쉽과 호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

6) 괄호 안의 숫자는 교재 텍스트에서도 ‘,’로 표시된 횟수를 의미한다.

결어가 쉽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굳이 논리 관계를 부각시키려 하지 않는 이상 중국어에서는, 특히 대화에서, 논리 연결어를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발화 맥락이 언어적으로 빈 부분을 메워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갖춤'의 규범성을 고려하더라도, 텍스트에 출현하는 연결어에는 그만의 담화 기능이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선행 연구들(Biq 1994, 1995, 方梅 2000)에서는, 연결어가 담화 속에서 쉽을 갖는다는 것은 기존의 위치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며 그만큼 문장의 경계를 넘어 담화 상의 또 다른 기능을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재에서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살펴보자.

- (14.1) [2.1] 瑪麗：這本=，中國歷史講座，有點兒難。中國概況，我能看懂，可是=，不知道=，能不能聽懂。  
 (14.2) [4.1] 大衛：找老師，或是，找大學生，各有利弊。老師，對你在課堂上學的內容，比較了解，輔導的時候，更有針對性，不過=，輔導費高一些。  
 (14.3) [2.1] 王老師：那=，你先去試聽一次，然後，再來選課。

흔히 연결어를 떠올리면 '한 명의 화자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예(14)가 가장 보편적인 용례를 보여준다. (14.1)에서 '可是'는 '看懂'과 '聽懂' 간의 의미상 역접을 표시하고 (14.2)의 '不過'는 '針對性'과 '輔導費高' 간의 대립을 표시한다. 그리고 (14.3)의 '然後'는 '先~, 再...'의 중간에서 '試聽'과 '選課' 두 사건 간의 전후 진행관계를 보여준다. 모두 화자 1인에 의한 발화로서 서술 상의 논리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 사용되는 연결어들을 보면 단순히 논리 관계만을 나타내지는 않음을 볼 수 있다.

- (15) [8.1]  
 安 娜：能不能，便宜一點兒。  
 售貨員：這是=，新上市的。不能打折。  
 安 娜：可是=，我們剛才進門的時候=，看見你們商店的門口寫着=，服裝..大減價，優惠甚麼的。

예(15)는 옷을 구매하는 맥락에서 '可是'의 상호작용적 쓰임을 잘 보여준다. 손

님인 安娜가 가격을 깎아 달라 요구하지만 售貨員이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한다. 이때 安娜는 다시 “可是=”로써 거절에 대한 반박을 시도하는데, 예(14.1)과는 다르게, 개인 발화의 논리 형성이 아닌 상대에 대한 ‘반박’의 도구로서 “可是”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논리상의 ‘역접’이 대인 간 의견 ‘대립’으로 확대된 결과라 하겠다. “可是”의 또 다른 기능을 보자.

(16) [7.1]

瑪麗：房子大嗎？

安娜：不太大。可是=，比校內的宿舍，太多了。

예(16)은 갓 이사한 安娜에게 집에 대한 상황을 瑪麗가 묻는 맥락이다. 瑪麗가 집이 크냐고 묻자 安娜가 그리 크지 않다고 대답한 뒤 “可是=”로써 ‘(房子)不太大’와 ‘比宿舍大’ 간의 의미 간 역접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사실 安娜의 발화만 놓고 본다면 예(15)처럼 개인 발화의 논리 구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을 발화하게 된 동기, 즉 瑪麗 발화와의 관계 속에서 安娜의 발화를 다시 살펴보면 “可是=” 뒤로는 ‘부연’임을 알 수 있다. “房子大嗎？—不太大”만으로 이미 주고받을 정보의 양은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安娜의 몫이다. 더불어, “不太大” 뒤의 “。”가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는 마침의 억양으로서 “房子大嗎？”라는 瑪麗의 질문에 ‘할 말 다 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런 뒤 이어지는 발화는 ‘좀 더 말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서두에 “可是”가 위치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텍스트에 대한 성우의 해석에 있다. 아래는 예(16)의 교재 텍스트 부분이다.

(16)’ [7.1]

瑪麗：房子大嗎？

安娜：不太大，可是比校內的宿舍大多了，(有兩個臥室，還有客廳、廚房和衛生間。)

예(16)’에서 安娜의 대화문은 “不太大”부터 “和衛生間”까지 한 문장으로 구성된 다. 의미별 단위가 각각 하나의 부호 안에 배당되었다고 생각하자. ‘이해’의 단위일까 ‘발화’의 단위일까. 발화라면, “。”로 미루어 보아 하나의 문장 억양만을 전제한

다고 볼 수 있는데, 선행 화자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부연의 나열 대상까지 모두 하나의 문장 역양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지속된 문장(run-on sentences)”의 개념이 대화문에도 전이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Biq(1994:30)는 이 같은 콤마의 지속적인 출현 이유를 중국어가 가진 “주제 부각(topic-prominent)”의 언어적 특징에서 찾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安娜의 대화문을 보면, “不太大, 可是比校內的宿舍大多了, 有兩個臥室, 還有客廳、廚房和衛生間。”의 서술어 “不太大”, “比宿舍大”, “有A”, “還有B、C和D”가 모두 잠재적 주제인 ‘房子’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교재의 대화문이 ‘갓춤’과 ‘지속’을 염두에 둔 문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시된 문장부호를 쉼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성우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관습에 따른 말하기에 충실한 결과이다. “以後”의 예 하나를 더 보자.

## (17) [6.3]

瑪麗: 那我=, 甚麼時候=, 給你打電話方便?

王瑋: 一般=, 中午, 和下午四點以後, 我的手機肯定是開着的。

예(17)은 瑪麗가 王瑋을 집전화로 수차례 찾았다가 결국에서야 만나는 맥락이다. 예(17)에 앞서, 瑪麗가 전화를 수차례 시도해도 찾을 수 없었다 하자 王瑋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며 이후 일이 있을 때 전화하라 이른다. 이에 瑪麗가 언제 전화하면 통화하기 편한가를 묻자 王瑋이 보통 12시 전후와 오후 4시 ‘이후’라며 “以後”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以後”는 그 앞에 보통, 상기 예처럼, 후행 절에서 제시될 행동의 기준시 또는 충족되어야 할 선행 행위를 두는데, “以後”가 그것의 ‘전·후’ 성격을 규정한다는 면에서 의미적으로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중간에 쉼이나 기타 성분을 두지 않는 경향을 띤다. 그러므로 ‘A以後, B’의 형식에서 “以後”는 A에겐 종점시를 B에겐 기점시를 표시하여 ‘언제 이후’ 또는 ‘무엇이 충족된 이후’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렇다면 다음의 “以後”는 어떨까.

## (18) [8.2]

大衛: 能不能再便宜一點兒?

攤主甲: 誰讓咱們是朋友呢。六十, 賣給你了。

大衛：怎麼樣？一百二，坎到六十，還可以吧。  
 瑪麗：那就買一套吧。  
 大衛：以後=，你到這兒來買東西，就叫上我。

예(18)은 瑪麗의 물건 구매에 大衛가 동행하여 대신 흥정을 하는 맥락이다. “誰讓咱們是朋友呢”로부터 볼 수 있듯, 大衛와 攤主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이 같은 관계 속에서 값을 절반으로 깎자 瑪麗는 한 세트를 사겠다 한다. 이에 大衛는 의기양양하게 다시 올 때도 자신을 부르라 주문하는데, 이 같은 ‘지시(“就叫上我”)’ 행위에 앞서 “以後”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以後”는 예(17)의 “以後”와 같은 기능을 할까. 우선 구조적으로 둘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예(17)의 “以後”는 ‘A+以後, B’의 구조 속에서 기능하지만 예(18)의 “以後”는 A가 없이 ‘以後, B’의 구조 속에서 기능한다. 이는, 예(17)의 “以後”가 A, B에게 각각 종점시와 기점시 기능을 했다면 예(18)의 “以後”는, 종점시의 대상을 갖지 않는 이상, 자연스레 기점시만을 표현하는 쪽으로 그 기능이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예(18)의 “以後”가 ‘지금/이제부터’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이다.

종합하면, 연결어와 쉼의 호응은 연결어가 기존의 보편적인 논리관계의 표시는 물론, “可是比較內的宿舍大多”와 같은 교재 텍스트의 예와는 다르게 어법적으로 절의 한 성분으로 종속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에 따른 독립성의 확보는 대화라는 상호작용 속에서 ‘반박’이나 ‘부연’, 혹은 또 다른 기능의 생성을 돕는데, 그러한 역동성의 일면을 성우가 자신의 발화로써 말해주고 있다.

### Ⅲ. 결론

지금까지 교재 텍스트와 전사를 통한 성우의 발화 실현 양상을 함께 비교해 보았다. 양자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크게 실현 전의 어법과 실현 후의 어법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찰을 위해, 발화에 초점을 둔다는 본고의 의도 상 강제와 쉼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고 어법과 담화와 간의 관계 속에서 분석과 해석을 진행하였다. 요컨대, 첫째, 是, 정보, 보어, 행위 언어와 연계된 성우의 강제는 주로 지시

으로서의 어법이 맥락에 대한 발화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표현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모문동사, 연결어의 사용 속에서 실현된 성우의 씬은 형태적 독립과 의미의 격리를 보여주는 표지의 하나로 기능함으로써 어법이 겪는 공시적 변화의 일면을 보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우에 대한 이 같은 관찰과 그 결과는 중국어 교육에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

첫째, “말하기”라면 해당 원어민의 말하기 관습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재 텍스트는 활자화된 대화문이다. 발화 시 주어지는 공간적, 시간적, 대인적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오롯이 기록된 활자에만 기대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좀 더 확실한 의미 전달을 위해 ‘갇춰진 문장(sentence)’토대의 대화문 작성이 요구를 받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화문이 아무리 문장을 토대로 한 인위성을 띤다고 해도 그것을 발화하는 성우는 있는 그대로를 읽지 않는다. 활자화된 내용에는 가치 판단에 제약을 받아도 실현된 발화 속에는 성우가 해석한 결과가 녹아 있다. 설령 성우 몇 명이서 여러 역할을 흔히 ‘돌려막기’ 하더라도 해당 역할을 분하며 ‘이런 맥락에서는 이 어휘를, 이 문장을 이런 억양에 이런 강세로 해야 적절하다’라는 원어민 간의 사회적 관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말하기 관습이라고 해서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모든 관습이 반영될 수는 없다. 정확한 발화 관습이 투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우의 발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활자 텍스트와 자연 담화라는 양 극단의 절충점으로 기능함으로써 인위적인 텍스트에 자연성을 어떻게 불어 넣어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며(그럼으로써 교재 텍스트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텍스트에 제시된 규범 내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에 요구되는 원어민 간의 최적의 말하기 관습을 엿보여 주기 때문이다.

둘째, 어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활자화된 텍스트는 맥락 정보의 제공에 제한이 있는 만큼 흔히 전형으로 여겨지는 어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전형도 변한다는 사실이 ‘규범’이라는 미명하게 교육에서 무시되곤 한다는 점이다. 몇 십 년 전의, 그것도 백화문에서 발췌한 예문이 현재의 어법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또 그로 인해 학습자들은 ‘왜 교실에서 배운 어법이 원어민과 다를까’ 하는 의문을 줄곧 품는다. 본론에서 보았듯이, 자연 담화 속에서는 이미 독립하여 각자의 기능을 발휘할 법한 동사나 연결어들이 교재 텍스트 속에서는 여전히 ‘앞 절’ 아니면 ‘뒷 절’이라는 고정된 틀 속에 귀속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제는 어법도 변한다는 사실,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에서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발생한다(emergent)”는 시각에서 ‘결과’로서의 어법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어법 개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Thornbury 2005:50) 어휘들은 생겨났다 유지되기도 하고 이내 사라지기도 한다. 그 중 무작위로 선택된 일부 어휘들은 긴밀과 소원을 반복하며 결합과 분리를 반복한다. 구조의 형성과 해체가 그것의 결과이다. 의미도 강해졌다 퇴색되고 근원적 의미를 바탕으로 여러 의미 파생을 반복한다. 언어 속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관찰자에게는 분석의 대상, 그러나 해당 언어 화자에게는 상호작용의 필요에 의해 겪는(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일상의 일부이다. ‘과정’으로서의 어법 개념이 요구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원어 화자의 일상 그리고 그 속의 사회적 관습, 그것이야말로 외국어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로서의 어법관으로 보면 변하는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또는 기준에서 벗어난 예외적 현상이다. 학습자에게는 계속 배워야 하는 부담스런 존재다. 하지만 ‘과정’으로서의 어법관은, 변화란 당연한 것이고 규범도 변할 수 있다는 탄력적 시야를 제공한다. 학습자에게는 교실과 현실 간의 차이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변화 중인 대상도 원어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능동적으로 배워야 할 존재가 된다. 다소 제한적이지만 그리고 다소 단편적일지라도 성우가 들려주는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다.

### 【參考文獻】

- 김현철, 김주형 <현대중국어 끊어 읽기에 따른 중의성의 구별>; 《中國語文學論集》 73, pp.113-144, 2012.
- 박덕준 <중국어 끊어읽기 교육에 대한 모색>; 《中國言語研究》 10, pp.1-20, 2000.
- 박용진 <중국인의 默讀에서의 의미군 끊어읽기에 대한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30, pp.89-114, 2005.
- 박용진, 김현철, 박병선 <母語爲韓語之漢語學習者的意義群斷句模型研究和閱讀指導模型設計>; 《中國語文學論集》 37, pp.219-240, 2006.
- 심소희 <中國語의 리듬 (Rhythm) 單位와 語法構造>; 《中國語文學誌》 5, pp. 307-348, 1998.
- 심소희 <한국인의 중국어 문장 끊어읽기에 대한 고찰>; 《中國言語研究》 8, pp.

213-239, 1999

- 畢永峨 〈會話互動性和語言使用〉: 《第四屆國際華語文教學研討會論文集: 語言分析組》, pp.227-236, 1994.
- 方 梅 〈自然口語中弱化連詞的話語標記功能〉: 《中國語文》第5期, pp.459-470, 2000.
- 劉德聯, 劉曉雨 편저 《北京大學 한어구어》 5, 서울, 중국어뱅크, 2009.
- 陶紅印 〈從語音、語法和話語特徵看“知道”格式在談話中的演化〉: 《中國語文》第4期, pp.291-302, 2003.
- Biq, Yung-O 〈Comma, Topic, Text, and Discourse〉: 《Proceedings of North American Conference on Chinese Linguistics》 6(12), pp.27-37, 1994.
- Biq, Yung-O 〈Chinese Causal Sequencing and Yinwei in Conversation and Press Reportage〉: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21, pp.47-60, 1995.
- Biq, Yung-O 〈The grammaticalization of jiushi and jiushishuo in Mandarin Chinese〉: 《Concentric》 27(2), pp.103-24, 2001.
- Biq, Yung-O 〈Nominal Intonation Unit and Speaker Change in Mandarin Conversation〉: Lily I-wen Su, Chinfa Lien, and Kawai Chui eds., 《Form and Function, Linguistic Studies in Honor of Shuanfan Huang》 Taipei, Crane, pp.45-70, 2002.
- Chafe, Wallace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flow and displacement of conscious experience in speaking and writ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김병원, 성기철 역 《담화와 의식과 시간(언어의식론)》서울, 한국문화사, 2006].
- Du Bois, John W., Stephan Schuetze-Coburn, Susanna Cumming, Danae Paolino 〈Outline of Discourse Transcription〉: Edwards, J. and Lampert, M. eds., 《Talking data: Transcription and coding in discourse research》 NJ, Lawrence Erlbaum, pp.45-90, 1993.
- Huang, Shuan-fan 〈Doubts about complementation: A functionalist analysis〉: 《Language and Linguistics》 4(2), pp.429-455, 2003.
- Iwasaki, Shoichi, Hongyin Tao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ructures of the Intonation Unit in English, Japanese, and Mandarin Chinese〉: 《Annual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Los Angeles, pp.1-10, 1993.
- Kreuz, Roger J., Monica A. Riordan 〈The transcription of face-to-face

interaction): In Wolfram Bublitz and Neal R. Norrick eds., 《Foundations of pragmatics》 Berlin, De Gruyter Mouton, pp.657-679, 2011.

McCarthy, Michael, Ronald Carter 《Language as discourse: Perspectives for language teaching》, Pearson Educaton, 1994[2004, 北京大學出版社影印本].

Tao, Hongyin 《The Intonation Unit as a Basic Unit of Discourse Analysis》: Yuchi Zhiping and Huang Shuxian eds., 《Special issue of Yuyan Yanjiu [Language Research]: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inese Linguistics》 Wuhan, pp. 216-220, 1991.

Tao, Hongyin 《Units in Mandarin conversation: Prosody, discourse, and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1996.

Tao, Hongyin 《The gap between natural speech and spoken Chinese teaching material: Discourse perspectives on Chinese pedagogy》: 《Journal of the Chinese language teachers association》 40(2), pp.1-24, 2005.

Thornbury, Scott 《Uncovering Grammar: How to Help Grammar Emerge》 Malaysia, Macmillan Education, 2005.

Wang, Yu-Fang 《The information sequences of adverbial clauses in Mandarin Chinese conversation》: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7(2), pp.45-89, 1999.

### 【中文提要】

本文的目的在於分析教材配音演員的言語來看教材篇章而設法彌補一些以篇章為主的既往教學具有的缺點。為此，本文首先以Du Bois等(1993)的轉寫體系轉寫配音演員的言語，把他所實現的重音聯係到‘是’、信息、結果補語、行為語言，而把他的停頓聯係到母型動詞‘覺得’、‘知道’和‘可是’、‘不過’、‘以後’等連接語，結果為：我們可以把重音作為配音演員以自己的語法知識理解篇章的一種表現，還可以把停頓作為一種表現他所屬的語言圈在進行變化當中的標記。從此，我們可以說在漢語教學中固然需要使用以篇章為主的教材但還需要傾聽教材配音演員說話時體現出的說話方式。

**【主題語】**

漢語教材, 篇章, 配音演員, 轉寫, 說話方式

투고일: 2013. 7. 15 / 심사일: 2013. 7. 20~8. 5 / 게재확정일: 2013. 8. 10